

다시 배우는 기독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놓친
9가지 복음의 언어

하나님 나라

구원

구원 이후

복음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성경

PROLOGUE

들어가는 글

익숙한 단어를 다시 묻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복음,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성경. 우리는 이 단어를 매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교재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신앙의 언어를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서 다시 듣기 위한 교재입니다. 어떤 장에서는 기존의 이해가 틀렸다고보다 너무 작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장에서는 교회 문화 속에서 반복해 온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의 중심 원칙

“익숙한 표현을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더 크고 풍성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 장은 **흔한 오해 → 성경의 큰 그림 → 균형 → 삶의 적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교재를 사용할 때

- › 성경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교재의 설명이 본문보다 앞서지 않게 합니다.
- › “정답 맞히기”보다 각자가 실제로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말하게 합니다.
- › 오해를 지적할 때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배우는 자리입니다.
- › 한 번의 토론으로 결론 내기 어려운 주제는 기록해 두고 다음 모임이나 개인 공부로 이어 갑니다.
- › 각 장의 마지막 “한 주 실천”을 반드시 작게라도 시도합니다. 개념은 삶으로 연결될 때 몸에 남습니다.

권장 진행 시간

10분

근황과 식탁

10분

오프닝 질문

15분

중심 본문 함께 읽기

20분

교재 핵심 읽기·설명

25분

소그룹 질문

10분

한 주 실천과 기도

CONTENTS

9주 과정 한눈에 보기

아홉 단어는 하나의 복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01

하나님 나라

누가 왕인가?

02

구원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03

구원 이후

구원은 어디를 향하는가?

04

복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05

교회

우리는 누구와 함께 부름받았는가?

06

예배

삶 전체를 누구께 드리는가?

07

찬양

우리는 누구를 높이고 무엇을 선포하는가?

08

기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09

성경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가?

마치는 글 · 부록 1 핵심 용어 미니 사전 · 부록 2 리더 진행 가이드 · 부록 3 함께 읽을 책과 성경 · 부록 4 개인 정리

1주

WEEK 01 ·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번 주 한 문장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뒤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중심 성경본문 마가복음 1:14-15 · 마태복음 6:9-13, 33 · 누가복음 4:16-21 · 요한계시록 21-22장

오프닝 질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1분 안에 대답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설명해 보자.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오해	성경적으로 다시 보기
하나님 나라는 죽은 뒤 가는 천국이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완성도 포함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창조를 향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나라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나라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1 예수님의 첫 설교를 다시 읽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로 시작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설명하는 개인 구원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치유, 귀신 추방, 죄 용서, 식탁 교제는 단순한 기적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를 보여 주는 표지였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죄와 포로, 제국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날 날을 기다렸다. 예수님은 그 오래된 소망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어디에 있는가?”보다 “누가 왕인가?”를 물어야 한다.

2 장소보다 통치, 그러나 장소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라고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음속의 영적인 상태로만 축소해서도 안 된다. 왕의 통치에는 백성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고, 결국 그 통치가 충만히 드러나는 새 창조의 현실이 있다. 요한계시록 21-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소망을 영혼이 땅을 떠나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으로 그린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고,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며, 영적이면서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다. “하나님 나라=천국”이라는 등식은 일부 진실을 담고 있지만 성경의 전체 그림을 너무 작게 만든다.

3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죄, 질병, 폭력, 죽음은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두 시대가 겹치는 시간 속에 산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맛보았지만 그 완성을 기다린다. 이것이 흔히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부르는 긴장이다.

이 긴장은 신앙의 현실을 정직하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과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다고 체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희망으로 오늘을 산다.

4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종교 활동을 더 많이 하라는 뜻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돈, 염려, 먹고사는 문제 한가운데서 누구의 통치를 신뢰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다. 주기도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이루어지이다”가 연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은 가정, 일, 소비, 관계, 성, 권력, 성공의 기준을 예수의 가르침 아래 놓는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을 떠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왕의 통치다.

균형을 위한 체크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하나님 나라를 사회개혁과 동일시하지도 말고, 개인의 내면이나 사후세계로 축소하지도 않는다.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통치를 미리 보여 주는 증인이다.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교재 설명을 잠시 덮고 중심 본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다음 질문에 짧게 표시한 뒤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1. 본문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행동은 무엇인가?
2. 이 본문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3. 이 본문이 당시 청중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4.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혀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 소그룹 나눔 질문

- 1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장소”로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했는가?
- 2 예수님의 치유와 죄 용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3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관점은 고통과 기도 응답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 4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은 돈, 관계, 일, 인정, 미래 중 무엇인가?
- 5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 나라를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 주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
- 6 이번 주 한 가지 결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 주 실천 · 작게, 구체적으로

주기도문(마 6:9-13)을 매일 천천히 읽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 맡길 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나의 한 문장

오늘 공부를 마치며 이 주제를 내 말로 한 문장에 정리해 보세요.

2주

WEEK 02 · 구원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번 주 한 문장

구원은 단지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 생명과 새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

중심 성경본문 로마서 3:21-26 · 로마서 5:1-11 · 로마서 6:1-11 · 로마서 8장 · 에베소서 2:1-10

오프닝 질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나는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오해	성경적으로 다시 보기
구원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심판에서의 구원은 중요하지만, 신약의 구원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한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다.	회개와 믿음은 실제적인 인간의 응답이지만, 구원의 시작과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
구원받았으면 이후의 삶은 부차적이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은 반드시 새로운 정체성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삶을 향해 우리를 이끈다.

1 구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성경에서 죄는 단순히 규칙 몇 가지를 어기는 행위 목록이 아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의 주인이 되려는 반역이며, 그 결과 하나님과 이웃, 자기 자신,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뒤틀린 상태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도 “벌을 면하는가”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죄책, 종살이, 원수 됨, 죽음, 부패, 어둠 등 여러 이미지로 설명한다. 그에 따라 구원도 칭의, 속량, 화해, 양자 됨, 새 창조, 성화, 영화와 같은 풍성한 언어로 말한다. 한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비유와 개념을 함께 사용한다.

2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중심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넘긴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신다. 신약은 그 사건을 속죄, 화목, 대속, 승리 등 여러 각도에서 설명한다. 어느 한 설명이 다른 모든 설명을 지워 버리기보다 서로를 보완한다.

부활은 구원에서 빠질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기적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새 생명을 연결한다.

3 구원은 과거·현재·미래를 가진다

신약은 때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때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며, 때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간 속에서 여러 차원을 갖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지금 성령 안에서 죄의 권세와 싸우며 변화되어 가고, 마지막에는 부활과 새 창조의 완성을 기다린다. 이 세 차원을 함께 붙들면 구원을 과거의 결신 날짜 하나로만 축소하지 않게 된다.

4 은혜와 믿음, 그리고 선한 일

에베소서 2장은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동시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한다. 순서는 중요하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는다.

따라서 “행위가 필요 없다”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두 극단 모두 복음을 왜곡한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인 종교 소비자로 남겨 두지 않고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움직인다.

균형을 위한 체크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칭의와 성화를 섞어 구원의 확신을 행위에 매달리게 하지 않으면서도, “한 번 결심했으니 삶은 상관없다”는 생각도 경계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이며 그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한다.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교재 설명을 잠시 덮고 중심 본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다음 질문에 짧게 표시한 뒤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1. 본문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행동은 무엇인가?
2. 이 본문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3. 이 본문이 당시 청중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4.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혀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 소그룹 나눔 질문

- 1 나는 구원을 주로 “죄의 벌에서 벗어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새 생명”, “미래의 부활” 중 어느 쪽으로 이해해 왔는가?
- 2 성경이 구원을 여러 이미지(칭의, 화해, 속량, 양자 등)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3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약하게 다루면 구원 이해에 어떤 부족함이 생길까?
- 4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실제로 나의 자량과 비교의식을 어떻게 흔드는가?
- 5 구원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은 죄와 습관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 6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내 정체성에 가장 깊게 영향을 주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한 주 실천 · 작게,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을 일주일 동안 두 번 읽는다. “정죄 없음”, “성령”, “양자”, “소망”이라는 네 단어 아래 마음에 남는 내용을 한 줄씩 기록한다.

나의 한 문장

오늘 공부를 마치며 이 주제를 내 말로 한 문장에 정리해 보세요.

3주

WEEK 03 · 구원 이후

구원받고 나서는 뭐 하지?

구원 그 이후는 무엇인가

이번 주 한 문장

구원 이후의 삶은 구원의 값을 갚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고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다.

중심 성경본문 마가복음 8:34-35 · 로마서 12:1-2 · 갈라디아서 5:16-25 · 고린도후서 3:18 · 빌립보서 2:12-13

오프닝 질문

신앙의 목표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오해	성경적으로 다시 보기
구원받은 뒤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	교회 활동은 중요하지만 제자도는 일, 돈, 관계, 몸, 시간, 선택을 포함한 삶 전체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닮는 것은 강한 의지와 훈련의 결과다.	훈련과 순종은 필요하지만 변화의 근원은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신다.
은혜를 강조하면 노력은 필요 없다.	은혜는 노력을 폐기하지 않고 방향과 근거를 바꾼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순종한다.

1 “믿으라”와 “따르라”를 함께 듣기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부르셨고 동시에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다. 이 둘을 분리하면 신앙은 지적 동의나 사후 보험이 되기 쉽다. 제자는 예수의 정체성을 믿고, 예수의 길을 배우며,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신의 길을 밝히신 직후 제자들에게도 자기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다. 제자도는 자기혐오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최종 주인”이라는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를 주로 따르는 것이다.

2 성화: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고린도후서 3:18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역시 단순한 인성 교육 목록이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 내시는 새로운 성품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는 결심만 반복하면 쉽게 낙심하거나 자기의기가 생긴다. 반대로 “성령이 하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태도도 성경적이지 않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습관, 공동체, 말씀, 기도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

3 훈련은 은혜의 반대가 아니다

성경 읽기, 기도, 금식, 나눔, 섬김, 안식, 공동체적 예배 같은 영적 훈련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훈련이다. 운동이 생명을 만들어 내지는 않지만 살아 있는 몸을 건강하게 훈련하듯, 영적 훈련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열어 두는 구체적인 습관이다.

훈련의 열매는 “나는 이것을 매일 했다”는 성취감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지고, 자기중심성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유가 자라는 것이다.

4 제자도는 교회 밖의 월요일에도 계속된다

신앙은 주일 활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계약을 대하는 정직함, 약자를 대하는 태도, 돈을 쓰고 모으는 방식, 가족에게 말하는 어조,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습관까지 제자도의 자리다.

로마서 12장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과 시간, 관계와 노동을 하나님께 드린다.

균형을 위한 체크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성화의 주체가 성령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훈련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지 않되, 은혜를 핑계로 무기력과 무책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교재 설명을 잠시 덮고 중심 본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다음 질문에 짧게 표시한 뒤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1. 본문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행동은 무엇인가?
2. 이 본문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3. 이 본문이 당시 청중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4.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혀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 소그룹 나눔 질문

- 1 나는 신앙의 목표를 “천국 가기”, “착한 사람 되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게 생각해 왔는가?
- 2 자기부인은 자기혐오와 어떻게 다른가?
- 3 성령의 열매 가운데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열매는 무엇인가?
- 4 내가 하고 있는 영적 훈련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노력인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습관인가?
- 5 직장·학업·가정·소비 중 하나를 골라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 이번 주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 6 우리 소그룹이 서로의 성화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무엇인가?

한 주 실천 · 작게, 구체적으로

매일 저녁 5분 동안 “오늘 예수를 따른 순간 / 내가 왕이 되려 한 순간 / 내일 한 가지 순종”을 기록한다.

나의 한 문장

오늘 공부를 마치며 이 주제를 내 말로 한 문장에 정리해 보세요.

4주

WEEK 04 · 복음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번 주 한 문장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이며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른다.

중심 성경본문 마가복음 1:14-15 · 로마서 1:1-4, 16-17 · 고린도전서 15:1-8 · 사도행전 2:22-36

오프닝 질문

친구가 "복음이 뭐야?"라고 묻는다면 30초 안에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교회", "천국"이라는 단어 없이 말해 보자.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오해	성경적으로 다시 보기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한 문장이다.	개인 구원은 복음의 중요한 열매지만, 신약의 복음은 예수의 오심·십자가·부활·주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한다.
복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가르침이다.	복음은 먼저 명령이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건에 대한 소식이다.
복음을 믿으면 삶이 잘 풀려야 한다.	복음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주를 따르며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한다.

1 복음은 “조언”보다 먼저 “소식”이다

복음으로 번역되는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다. 소식은 무엇을 해서 현실을 만들어 내라는 지시보다, 이미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을 알리는 데서 시작한다.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셨다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다. 이 순서가 바뀌면 복음은 또 하나의 자기구원 프로젝트가 된다.

2 복음의 내용: 왕이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복음이라 부르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복음의 중심 사건으로 요약한다. 사도행전의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선언을 강조한다. 이 내용들은 경쟁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왕이신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악을 담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신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내 개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기 시작하셨다는 우주적 소식이면서 동시에 나를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는 개인적 소식이다.

3 회개와 믿음은 복음에 대한 응답이다

회개는 단지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다. 삶의 방향과 충성을 돌이키는 것이다. “내가 왕”인 삶에서 “예수가 주”인 삶으로 방향을 바꾼다. 믿음도 정보에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은 복음의 값이 아니다. 복음을 받는 빈손이다. 은혜가 먼저이고 응답이 뒤따른다. 그래서 회개는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희망의 움직임이다.

4 복음은 매일의 신앙에도 필요하다

복음은 비그리스도인에게만 필요한 입문 메시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도 매일 자기 의, 비교, 성취, 실패를 통해 다시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 그래서 복음은 “나는 내 성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로 우리를 계속 돌려놓는다.

복음이 삶의 중심에 있을수록 우리는 성공했을 때 교만할 이유가 줄고, 실패했을 때 절망할 이유도 줄어든다. 우리의 정체성의 최종 근거가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균형을 위한 체크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복음을 “개인 죄 사함”으로만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변화나 하나님 나라 담론 속에서 죄, 십자가, 회개,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지 않는다. 복음은 왕 예수에 관한 소식이며 그 소식은 개인과 공동체, 창조 전체를 새롭게 한다.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교재 설명을 잠시 덮고 중심 본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다음 질문에 짧게 표시한 뒤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1. 본문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행동은 무엇인가?
2. 이 본문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3. 이 본문이 당시 청중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4.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혀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 소그룹 나눔 질문

- 1 내가 들어온 복음 설명은 주로 어떤 요소를 강조했는가?
- 2 복음이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말이 신앙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하는가?
- 3 “예수는 나의 구원자”와 “예수는 주님”이라는 고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4 회개를 죄책감이나 자기비난과 동일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5 성과와 인정에 흔들릴 때 복음은 내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세워 주는가?
- 6 30초 복음 설명을 다시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꼭 넣고 싶은가?

한 주 실천 · 작게,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1-8을 읽고 “복음은 예수에 대해 어떤 사건을 말하는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한다.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나는...”으로 개인의 응답을 적는다.

나의 한 문장

오늘 공부를 마치며 이 주제를 내 말로 한 문장에 정리해 보세요.

교회는 건물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번 주 한 문장

교회는 특정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말씀과 성례, 사랑과 사명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중심 성경본문 사도행전 2:42-47 · 고린도전서 12:12-27 · 에베소서 2:19-22 · 에베소서 4:1-16 · 요한복음 13:34-35

오프닝 질문

건물도 없고 전임 목회자도 없고 주일 프로그램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사랑으로 함께 산다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오해	성경적으로 다시 보기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다.	신약에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인 회중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건물은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이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 설명은 어원을 지나치게 신학화한 것이다.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으로 모임·회중·집회를 뜻하며, 의미는 문맥에서 확인해야 한다.
교회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교회는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지체가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몸이다.

1 “교회에 간다”보다 “우리가 교회다”

한국어에서 “교회”는 건물과 공동체를 동시에 가리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혼동이 생긴다.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도시의 시민 집회에도 사용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단어이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킬 때는 예수께 속한 회중을 뜻한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어원 풀이를 교회의 정의로 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교회 건물은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교회 자체는 아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고, 박해 속에서 공간을 잃기도 했다. 그럼에도 말씀, 기도, 성찬, 교제, 섬김을 함께한 공동체는 교회였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설명한다. 몸의 비유는 다양성과 상호의존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손은 눈이 될 필요가 없고, 눈은 손 없이 살 수 없다. 은사와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 비유는 교회를 “목회자가 사역하고 성도는 소비하는 구조”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모든 지체는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세운다. 교회는 몇 명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종교 서비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이다.

3 교회는 말씀과 성례, 공동체적 삶으로 형성된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에 힘썼다고 말한다. 역사적 교회는 이 본문을 포함한 신약의 증언을 따라 말씀의 선포와 세례·성찬,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이해해 왔다.

교회는 단지 친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같은 취향을 가진 네트워크도 아니다. 복음의 말씀 아래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서로에게 책임지는 공동체다.

4 모이는 교회와 흠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를 세운다. 그리고 다시 가정, 직장, 학교, 동네로 흠어져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둘 중 하나만 강조하면 교회가 왜곡된다. 모임만 강조하면 종교적 폐쇄성이 생기고, 흠어짐만 강조하면 공동체적 훈련이 약해진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선교는 프로그램 이전에 공동체의 사랑과 거룩, 환대와 정의를 통해 드러난다.

균형을 위한 체크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지역교회, 공예배, 목회적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한다. 동시에 조직의 유지 자체를 교회의 목적처럼 여기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세상을 위해 보내진 공동체다.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교재 설명을 잠시 덮고 중심 본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다음 질문에 짧게 표시한 뒤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1. 본문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행동은 무엇인가?
2. 이 본문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3. 이 본문이 당시 청중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4.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혀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 소그룹 나눔 질문

- 1 내가 “교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건물, 목회자, 예배, 공동체, 사명 중 무엇인가?
- 2 에클레시아의 어원에 관한 흔한 설명이 왜 주의가 필요한가?
- 3 교회를 “서비스 제공자”로 생각할 때 성도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4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는 소그룹 안에서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가?
- 5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라는 말이 실체가 되기 위해 바뀌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 6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우리 삶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 주 실천 · 작게, 구체적으로

이번 주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정해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실천한다. 작은 식사, 경청, 도움, 기도 중 하나면 충분하다.

나의 한 문장

오늘 공부를 마치며 이 주제를 내 말로 한 문장에 정리해 보세요.

예배는 주일 한 시간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이번 주 한 문장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하신 일에 응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전체이며, 그 삶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찬양으로 반복해서 형성된다.

중심 성경본문 로마서 12:1-2 · 요한복음 4:19-24 · 사도행전 2:42-47 · 히브리서 10:19-25 · 골로새서 3:16-17

오프닝 질문

“오늘 예배 좋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평가하는가? 음악, 설교, 분위기, 하나님의 임재, 나의 반응 중 무엇인가?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오해	성경적으로 다시 보기
예배는 찬양과 설교로 구성된 주일 프로그램이다.	공예배는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은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말한다.
삶이 예배니까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는 없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 말씀, 기도, 성찬, 격려에 참여했다. 삶의 예배와 공예배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좋은 예배는 내가 감동을 많이 받은 예배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만족보다 하나님이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예배의 진실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1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성경의 예배는 인간이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며, 백성이 그 은혜에 응답한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예배가 시작되고, 로마서 1-11장의 복음 설명 이후 12장에서 몸을 드리는 예배가 요청되는 구조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러므로 예배의 첫 질문은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행위다.

2 삶 전체가 예배라는 말의 의미

로마서 12:1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권면은 예배를 일상의 몸과 분리할 수 없게 한다. 예배는 주일에 노래를 부르는 입술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일하는 손, 돈을 쓰는 방식, 관계를 맺는 태도, 성을 대하는 몸, 시간을 사용하는 선택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삶이 예배”라는 표현이 공예배를 가볍게 만드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함께 모이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야기 안에서 다시 배치하고, 삶의 예배가 공예배의 진실성을 드러낸다.

3 함께 모이는 예배가 우리를 형성한다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한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기도,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 공동체 예배는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보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배우는 자리다.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선언받고,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반복은 우리 욕망을 재교육한다. 예배는 단지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주로 섬길 것인가”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다.

4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배 장소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진심만 있으면 형식은 상관없다”는 뜻으로 줄이면 부족하다.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참된 예배는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진실한 마음과 바른 대상,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예배는 진심이면서 동시에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균형을 위한 체크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삶의 예배를 강조하다 공예배를 약화시키지 않고, 공예배를 강조하다 주일과 월요일을 분리하지 않는다. 예배의 성패를 음악 스타일이나 감정의 강도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교재 설명을 잠시 덮고 중심 본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다음 질문에 짧게 표시한 뒤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1. 본문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행동은 무엇인가?
2. 이 본문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3. 이 본문이 당시 청중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4.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혀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 소그룹 나눔 질문

- 1 나는 “예배가 좋았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가장 자주 사용해 왔는가?
- 2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우리가 응답한다는 예배의 구조는 무엇을 바꾸는가?
- 3 삶 전체가 예배라면 내 직장·학업·가정에서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 4 공예배가 개인 신앙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5 감정이 강하지 않아도 참된 예배가 가능할까? 반대로 감정은 왜 소중한가?
- 6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인지 소비자 중심인지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

한 주 실천 · 작게, 구체적으로

다음 주일까지 하루에 한 번 “이 행동도 예배가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일, 식사, 소비, 대화 중 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한 문장

오늘 공부를 마치며 이 주제를 내 말로 한 문장에 정리해 보세요.

찬양은 노래인가?

찬양은 무엇인가

이번 주 한 문장

찬양은 음악 장르나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인정하고 높이며 선포하는 반응이고, 음악은 그 반응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다.

중심 성경본문 시편 96편 · 시편 103편 · 시편 150편 · 에베소서 5:18-20 · 골로새서 3:16 · 요한계시록 5:9-14

오프닝 질문

노래를 부르지 않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오해	성경적으로 다시 보기
찬양은 예배 초반의 음악 시간이다.	음악 찬양은 찬양의 한 형태다. 성경의 찬양은 말, 삶, 감사, 선포를 포함하는 더 넓은 반응이다.
찬양의 목적은 나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감정은 찬양의 소중한 부분이지만 중심은 하나님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다.
잘 부르는 사람만 제대로 찬양할 수 있다.	찬양은 공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신다.

1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높임이다

성경에서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시편은 창조, 구원, 신실하심, 공의, 자비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노래한다. 찬양의 근거는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재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하는 자기치유 활동이 아니라, 마땅히 영광받으실 분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다. 감정은 종종 뒤따라오지만 찬양의 토대는 하나님의 진리다.

2 음악은 강력한 도구지만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시편 150편은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른다. 음악은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선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 증언, 순종,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본다.

따라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사람도 삶이 함께 가지 않으면 참된 찬양이라 하기 어렵다. 입술의 찬양과 삶의 찬양은 함께 간다.

3 찬양은 진리를 담고 서로를 세운다

골로새서 3:16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한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세운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가사는 은연중에 우리의 신학을 형성한다. 그래서 무엇을 노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가사가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에만 집중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면 찬양은 서서히 자기중심적 정서 체험으로 흐를 수 있다. 좋은 찬양은 진리를 아름답게 담아 마음을 움직인다.

4 찬양은 고난 속에서도 드릴 수 있다

시편에는 기쁨의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찬양도 있다. 찬양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가능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근거한 신앙의 행위다.

그래서 눈물 속의 찬양,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찬양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이 어린양께 찬양드리는 장면을 보여 준다. 찬양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

균형을 위한 체크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음악의 감동을 하나님의 임재와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감정과 예술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음악은 진리를 담아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물이다.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교재 설명을 잠시 덮고 중심 본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다음 질문에 짧게 표시한 뒤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1. 본문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행동은 무엇인가?
2. 이 본문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3. 이 본문이 당시 청중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4.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혀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 소그룹 나눔 질문

- 1 나는 찬양을 주로 음악으로 이해해 왔는가, 삶과 말의 반응까지 포함해 이해해 왔는가?
- 2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배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 3 가사에 담긴 신학이 왜 중요할까? 기억에 남는 찬양 가사가 있다면 나눠 보자.
- 4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찬양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 5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 6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이번 주에 한 가지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한 주 실천 · 작게, 구체적으로

시편 한 편(96편 또는 103편)을 매일 소리 내어 읽고, 그날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감사로 적는다.

나의 한 문장

오늘 공부를 마치며 이 주제를 내 말로 한 문장에 정리해 보세요.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이번 주 한 문장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술이나 소원 목록 낭독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누는 신뢰의 대화이며 그분의 나라와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관계다.

중심 성경본문 마태복음 6:5-15 · 누가복음 11:1-13 · 마태복음 26:36-42 · 로마서 8:26-27 · 빌립보서 4:6-7

오프닝 질문

기도가 잘 안 될 때, 나는 보통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응답, 집중, 죄책감, 방법 중 무엇인가?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오해	성경적으로 다시 보기
기도는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간구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도에는 찬양, 감사, 고백, 경청, 순복도 포함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
기도는 감정이 충만할 때만 진짜다.	기도는 관계이며 습관이다. 메마른 날의 기도도 신실한 기도일 수 있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1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시작하셨다.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셨다는 은혜다. 그래서 기도는 실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누는 신뢰의 대화다.

이 관계적 토대는 기도의 부담을 덜어 준다. 우리는 완벽한 언어로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2 주기도문이라는 기본 틀

주기도문은 기도의 균형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에서의 보호가 이어진다. 이 순서는 기도가 나의 필요에서 시작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 정렬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동시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필요에도 관심이 있으심을 보여 준다. 기도는 거창한 영적 주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밥과 관계와 두려움을 포함한다.

3 응답과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가르치셨다. 동시에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간절한 요청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라 성숙한 기도의 두 축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응답이 이뤄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올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응답의 기준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둘 때 기도는 더 깊어진다.

4 메마름과 성령의 도우심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한다. 이 약속은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큰 위로다. 기도의 최종 능력은 우리의 집중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메마른 시기에도 짧게, 정직하게,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균형을 위한 체크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기도를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간구는 대립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교재 설명을 잠시 덮고 중심 본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다음 질문에 짧게 표시한 뒤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1. 본문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행동은 무엇인가?
2. 이 본문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3. 이 본문이 당시 청중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4.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혀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 소그룹 나눔 질문

- 1 내 기도는 주로 간구, 감사, 고백, 경청 중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 2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이 내 기도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3 겟세마네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나의 기대를 어떻게 조정해 주는가?
- 4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 5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약속은 어떤 위로를 주는가?
- 6 우리 소그룹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 주 실천 · 작게,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 하루 5분씩 기도한다. 찬양·나라·뜻·필요·용서·보호를 한 문장씩 나의 상황에 맞게 기도한다.

나의 한 문장

오늘 공부를 마치며 이 주제를 내 말로 한 문장에 정리해 보세요.

성경은 규칙책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이번 주 한 문장

성경은 단순한 규칙 모음이나 위인전이 아니라,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한다.

중심 성경본문 누가복음 24:25-27, 44-47 · 디모데후서 3:14-17 · 히브리서 4:12 · 시편 119:105 · 요한복음 5:39-40

오프닝 질문

누군가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야?”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오해	성경적으로 다시 보기
성경은 지켜야 할 규칙과 교훈의 모음이다.	명령과 지혜도 담겨 있지만 성경의 큰 틀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며 규칙도 그 이야기 안에서 이해된다.
성경은 나에게 주는 오늘의 응원 메시지다.	위로를 주지만 한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 내 나의 상황에만 맞추는 읽기는 본문을 왜곡할 수 있다.
성경은 위인들의 성공을 본받게 하는 책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물들의 실패 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1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성경은 66권의 다양한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창조, 타락, 이스라엘, 그리스도, 교회,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가진다. 개별 본문은 이 큰 이야기 안에 놓일 때 가장 정확하게 이해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은 전체 이야기의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거나 대립시키지 않게 해 준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한다.

2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정보 습득이나 도덕적 교훈 수집을 넘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핵심을 놓친 것이다. 지식이 사랑과 순종으로 이어질 때 성경 읽기는 살아 있는 만남이 된다.

3 성경은 우리를 빚어 가는 살아 있는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를 읽고 빚어 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정보 수집을 넘어 순종과 변화를 향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 없이 지식만 쌓으면 지식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다.

4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건강한 성경 읽기는 문맥을 존중한다. 한 구절을 떼어 나의 소원에 맞추기보다, 그 본문이 원래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듣는다. 또한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고 해석해 온 책이므로 개인의 해석을 교회의 오랜 이해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지혜롭다.

동시에 성경 읽기는 학문적 분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읽을 때 말씀은 삶을 변화시킨다.

균형을 위한 체크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성경을 규칙집으로 축소하지도, 감성적 위로집으로 축소하지도 않는다. 지식과 순종, 개인 묵상과 공동체 해석, 학문적 이해와 기도하는 읽기를 함께 붙든다.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교재 설명을 잠시 덮고 중심 본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다음 질문에 짧게 표시한 뒤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1. 본문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행동은 무엇인가?
2. 이 본문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3. 이 본문이 당시 청중에게 요구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4.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혀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 소그룹 나눔 질문

- 1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주로 어떤 책으로 읽어 왔는가?
- 2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관점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바꾸는가?
- 3 한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 4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가?
- 5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 6 지난 9주를 돌아볼 때, 나의 성경 읽기 습관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한 주 실천 · 작게, 구체적으로

한 복음서(예: 마가복음)를 정해 매일 한 장씩 읽으며 “이 본문은 예수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한 줄씩 기록한다.

나의 한 문장

오늘 공부를 마치며 이 주제를 내 말로 한 문장에 정리해 보세요.

다시 배우는 자리에서

익숙함을 넘어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지난 9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 구원 이후, 복음,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성경이라는 익숙한 단어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 단어들은 서로 떨어진 아홉 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로 살아가고, 그 복음의 백성이 교회를 이루며, 교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형성된다.

아홉 단어,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

구원

→

구원 이후

→

복음

→

교회

→

예배

→

찬양

→

기도

→

성경

이 교재의 목적은 익숙한 표현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더 크고 풍성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해는 틀렸다고보다 너무 작았고, 어떤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 배운 사람이 아니라, 평생 다시 배우는 제자다.

함께 걸어온 9주를 기억하며

9주를 마치며, 세 가지 질문

- 1 지난 9주 동안 가장 크게 넓어진 이해는 어떤 단어에서였는가?
- 2 배운 것 가운데 삶으로 옮기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 3 이 배움을 이어 가기 위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정할 한 가지 습관은 무엇인가?

핵심 용어 미니 사전

짧게 확인하는 아홉 단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그 통치가 실현되는 현실.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구원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과거·현재·미래의 차원을 가진다.

제자도 구원 이후의 삶.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 조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선포이며 회개와 믿음으로 부른다.

교회 그리스도께 속하여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하나님의 백성. 건물이 아니라 말씀·성례·사랑·사명을 함께 사는 공동체.

예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응답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된다.

찬양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인정하고 높이며 선포하는 반응. 음악은 그 반응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

기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누는 신뢰의 대화. 간구뿐 아니라 찬양·감사·고백·경청·순복을 포함한다.

성경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한다.

리더 진행 가이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발견하는 자리로

진행의 기본 태도

- › 정답을 빨리 제시하기보다 참가자가 본문에서 스스로 발견하도록 기다린다.
- › “오해”를 다룰 때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배우는 자리임을 기억한다.
- ›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은 질문 뒤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 ›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조용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발언 기회를 준다.
- › 결론이 나지 않는 신학적 질문은 억지로 닫지 말고 기록해 두고 다음으로 이어 간다.

한 번의 모임 흐름 (약 90분)

10분 근황 나눔과 식탁 ·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10분 오프닝 질문 · 각자의 기존 이해를 솔직히 꺼낸다.

15분 중심 본문 함께 읽기 · 교재보다 성경을 먼저 편다.

20분 교재 핵심 읽기와 설명 · 오해 표와 네 단락을 함께 정리한다.

25분 소그룹 질문 · 여섯 질문 중 상황에 맞게 3~4개를 고른다.

10분 한 주 실천 정하기와 기도 · 각자의 결단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

시간이 부족할 때

모든 내용을 다루려 하지 말고 “이번 주 한 문장”, 오해 표 한두 줄, 나눔 질문 두 개, 한 주 실천에 집중한다. 깊이 있는 한 가지가 얕은 여러 가지보다 낫다.

APPENDIX 3

함께 읽을 책과 성경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

주제별 추천 도서

존 스토틀 ·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구원 입문

팀 켈러 · 《팀 켈러의 기도》

기도(8주)

팀 켈러 · 《왕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복음

존 스토틀 · 《제자도》

구원 이후(3주)

D. A. 카슨 · 《성경 신학적으로 읽기》 등 통독 안내서

성경(9주)

C. S. 루이스 · 《순전한 기독교》

전반 보충

※ 번역본의 제목과 출판사는 판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 시 저자명과 원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9주 중심 본문 한눈에

1주 하나님 나라 막 1:14-15

2주 구원 엡 2:1-10

3주 구원 이후 롬 12:1-2

4주 복음 고전 15:1-8

5주 교회 고전 12:12-27

6주 예배 롬 12:1-2 · 요 4:19-24

7주 찬양 시 96 · 150 · 골 3:16

8주 기도 마 6:5-15 · 롬 8:26-27

9주 성경 눅 24:44-47 · 딤후 3:14-17

APPENDIX 4

9주 개인 정리

각 주제를 나의 언어로 한 문장씩

1주 · 하나님 나라

2주 · 구원

3주 · 구원 이후

4주 · 복음

5주 · 교회

6주 · 예배

7주 · 찬양

8주 · 기도

9주 · 성경

**우리는 다 배운 사람이 아니라,
평생 다시 배우는 제자다.**

FINIS